

# 성인 소비자의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 및 만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vel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n Leisure by The Types of Money Attitudes in Adults Consumer

김영숙\* · 이신정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 경성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YoungSook Kim\* · SinJung Lee

Dept. of Human Ecology, Kyungsung Univ ·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ung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evel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n leisure by the types of money attitudes in adults consumer, and to offer useful informations for improvement of leisure life.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449 adult consumers in Bu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1. The attitude factors of adult consumers toward money are divided into six factors. And according to the factor points, five clusters are obtained.
2. Demographic variables which influenced on the types of money attitudes were the size of a family, the household monthly income, and the educational background.
3. The differences of level of participation on leisure according to the types of money attitudes were significant to participation level, participation time, participation cost and participation satisfaction in leisure.
4. The differences of satisfaction on leisure according to the types of money attitudes were significant to the monthly leisure expenditure.
5. The influencing variables of satisfaction on leisure according to the types of money attitudes showed differences by the various cluster types.

Key Words : Money attitudes, Level of participation on leisure, Satisfaction on leisure

### I. 서론

숙, 2002).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에 대한 관심과 기대, 여가시간과 여가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여가생활이 양적으로 팽창한 반면 여가생활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여가생활의 질적인 측면에서 수준이 향상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김영숙, 2002).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회통계 조사에 의하면 도시가계의 총지출에서 교양·오락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3년 0.6%, 1973년 1.6%, 1983년 3.8%, 1993년 5.1% 2003년 4.9%로 나타났다. 특히,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된 1997년을 기점으로 다소 약간의 감소를 보였으나 비교적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체 국민의 여가활용 만족도는 만족27.3%, 불만족 72.7%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가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산업화 과정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여가 및 소비생활이 중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오늘날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다양하고 많은 여가관련 정보들이 제공되면서 사람들에게 생리적, 물질적 욕구충족보다 문화적, 정신적 욕구충족을 통한 생활의 질적 향상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 여가는 휴식이나 노동력 재생산 및 자기실현의 기능을 하여 그 자체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김영

\* Corresponding author: YoungSook Kim  
Tel: 051) 620-4653, Fax: 051) 611-2448  
E-mail: yskim@star.ks.ac.kr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4 1/4분기). 이렇듯 여가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한 사람들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52.4%)과 '시간부족'(2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의 부족이 여가생활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잘 반영해 준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도록 만드는 매개체인 화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영위를 위한 소비의 대부분이 화폐라는 중요한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가 또한 화폐를 통한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 교환 수단인 화폐만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구입할 수 있고, 교육을 받아 학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가족을 편히 부양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인들의 호감을 사고, 존경을 받는 등 모든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화폐에 관심을 가진다(Hersey & Blanchard, 1977; 이순희, 2000 재인용). 화폐는 인간의 욕구충족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개개인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다르므로 각 개인마다 지니는 화폐태도 또한 다양할 것이다. 사람마다 제각기 나름대로 화폐를 다루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를 나타내어 주므로 개인의 화폐태도를 이해하게 되면 화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박정숙, 2001 재인용). 화폐태도에 따라 소비성향에 차이를 나타낸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소비측면에서 여가 또한 화폐태도에 따라 참여 및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기존의 많은 여가관련 선행연구들은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인이나 기타 변인들의 객관적 변인을 고려한 사실적 기술에 중점을 두어 소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심리적 변인인 화폐태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또한 주 5일 근무제의 실시와 과학기술, 의학발달로 인한 수명연장으로 더욱 더 중요시 될 여가생활을 위한 여가산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해 볼 때 여가관련 연구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하며 소비측면에서 화폐태도 또한 더욱 고려되어야 할 심리적 변인으로 향후 여가관련 연구방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본 연구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제각기 서로 다른 개개인의 화폐태도에 따라 여가참여 및 만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주관적, 심리적 변인 중에서 화폐태도를 유형화하여 여가참여 및 만족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즉, 화폐태도 유형별 성인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여가참여 및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와 함께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화폐에 대한 소비자태도

화폐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은 화폐를 재화, 용역에 대한 지불수단, 채무이행의 수단 또는 가치저장의 수단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말남, 2002). 화폐의 의미는 "주시자의 눈에 있다"(McClelland, 1967)고 하여(Tang, 1995 재인용), 사람마다 화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하며, 화폐에 대한 의미에 따라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거나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달라진다(Belk & Wallendorf, 1990; 김영신, 2001 재인용).

사회학·심리학·사회심리학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적 개념의 하나로 쓰이는 태도는 심리적 과정의 결과로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고 사람들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태도에는 대상과 방향수준·강도 및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학습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백광 외, 1999). 사회 심리학자들과 심리 측정가들은 화폐태도 측정에 특히 관심을 가져왔다. Luft(1957)는 개인의 수입이 그 사람이 또래들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강희선, 2002 재인용). Rim(Rim, 1982)은 안정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불안정하고 내향적인 사람보다 화폐에 대해 더 개방적이고, 편안해하고 근심이 없는 것으로 보았고, Wernimont & Fitzpatrick(1972)는 고용인들이 비고용인들보다 더 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다(Christopher Et Al., 2004 재인용).

Hallowell & Grace(1991)는 화폐에 대한 사람들의 스타일을 크게 광신자(enthusiasts), 지출자(spender), 미관여자(uninvolved), 회의론자(skeptics)로 나누고, 각각을 정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그들의 화폐에 대한 의미와 특성을 서술하고 그에 따른 금전관리 스타일을 알아보았다(홍은실·황덕순, 2001 재인용). Roberts & Jones(2001)의 연구에서 권력과 명예(지위)의 도구로써 화폐에 대한 지각은 충동구매를 증가시켰고, 가격 민감성(불신)은 충동구매를 감소시켰으며, Christopher Et Al.(2004)의 연구에서 물질주의는 화폐부족과 정적관계, 화폐에 대한 보수적 접근과는 부적관계, 자기권력 강화의 도구로써의 화폐사용이 정적관계에 있음을 나타냈다. 김

정훈·정혜정(1996)은 Furnham의 MBBS를 이용하여 화폐에 대한 태도를 강박적 태도, 지출경향, 재정상태에 대한 자신감, 화폐의 사회적 힘 인식, 폐쇄적 태도, 비공격적 태도의 6개로 분류하여, 화폐의 심리적 역할이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게 되고 그에 따라 화폐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화폐태도와 소비와의 관계를 논의한 박은아(1994)는 화폐태도가 현시적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김정훈·동환숙, 2002 재인용), 백은영(1997)은 화폐태도 유형을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 인색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 성공의 척도로 여기는 유형, 불안감을 지니고 있는 유형의 5개로 나누어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지출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김영신(2001)의 연구에서는 화폐태도가 대학생소비자의 강박적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변수로 나타났고, 박정숙(2001)의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단계별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홍은실 외(2001)는 화폐태도 척도를 성공의 척도, 감정충족의 도구, 불안의 원천, 인색한 태도, 안전의 도구인 5가지로 나누었고, 바람직한 금전사용행동을 유도하는 태도는 화폐를 안전의 도구,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태도이며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를 지닐수록 바람직한 금전사용행동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2002)은 화폐태도 유형을 인식형, 정서형 2개로 나누었는데, 인식형은 주부들이 많고 부정형의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이, 정서형은 대학생들이 많고 허용형의 신용에 대한 태도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태도는 개인의 기질이나 인생경험 혹은 주어진 환경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심리적 가치를 부여한다(Hollowell & Grace, 1991; 백은영·정순희, 1998 재인용). 이러한 화폐태도는 복잡, 다차원적이며 화폐에 대해 긍정적(자유, 사랑, 품질)인 면과 부정적(불신, 부적합성, 실패)인 면을 다 가지고 있다(김영신, 2001). 많은 학자들이 화폐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화폐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전반적인 소비생활 태도를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이들의 비합리적이거나 역기능적인 소비생활을 바로 잡기 위한 소비자 교육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김정훈·이은희, 2002). 따라서 화폐태도는 “사람들의 일생을 점검하는 ‘창고의 틀’로써 인식될 수”(Tang, 1992) 있으므로 화폐에 대한 개개인의 다양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소비와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 2. 여가참여 및 만족

### 1) 여가에 대한 개념

여가는 하나의 행동양식으로서 오늘날의 여가현상은 노동, 가정생활 및 문화 전체에 여러 형태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본래 그 의미가 복잡하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가의 개념 및 정의 또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백광외, 1999).

베블렌(Veblen)은 여가란 유한계급의 소유로써 그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뉴메이어(Neumeyer)는 “여가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을 끝낸 후의 자유시간을 말한다”고 하였다(오순환, 2000). Brightbill(1963)은 여가를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갖게 되는 자유재량적 시간으로 정의하였고(송원익, 2004 재인용), Dumazedier(1967)는 여가를 개인이 노동, 가족, 사회의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 기분전환 또는 지식확대, 자발적 사회참여, 자유로운 창조력 발휘를 위해 행하는 임의적 활동의 총체로 정의하였으며(양성인, 2002 재인용), Kelly(1972)는 여가를 자유선택성의 차원으로 정의하면서 순수여가, 보충적여가, 조정적여가, 준비·회복적여가의 4가지 여가형태를 가진다고 하였다. 장방선(1985)은 수면·가족돌보기·가사·주부 자신의 신변집임을 제외한 스스로 선택하여 영위하는 생활 또는 활동을 여가라 하였고, 노영구·박원임(2000)은 여가는 ‘생리적 필수시간과 노동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한 어떤 활동에서 기쁨, 만족감, 나아가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뉴우링거(Neulinger)는 여가란 경험 및 마음의 상태임을 강조하였고, 여가를 삶의 궁극적인 도달점으로 생각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정의도 여기에 해당된다(이중구, 2000).

### 2) 여가활동의 유형

여가활동 유형은 그 분류형태나 내용에 있어서 매우 다양함과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백광외, 1999). Lutzin은 동기 및 표현 형태에 따라 신체적 활동, 사교활동, 문화적 활동, 자연적 활동, 정신적 활동의 5가지 여가활동 유형으로(김기영, 1997 재인용), Dardis Et Al.(1994)는 적극적 활동, 소극적 활동, 사교·오락활동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영숙, 2002; 안혜영, 1995; 양성인, 2002)은 여가활동 유형을 스포츠 활동, 취미교양활동, 관람감상활동, 사교활동, 관광행락활동, 놀이오락활동으로 분류하였고, 윤영화(2003)는 관광활동, 스포츠활동, 취미·교양활동, 오락·기타활동의 4가지 형태로, 김영숙(2004)은 관람

활동, 자기개발활동, 스포츠활동, 여행활동, 기타여가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여가는 다양한 측면의 개념들 중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자유시간과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여가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으나 상태적 정의는 관찰 및 계량화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비용지출로서의 여가는 여가활동 만 인지할 수 있다면 여가행위에 소비되는 시간을 금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질적으로 심화시키거나 또는 시간을 금전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여가량 측정의 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이중구, 2000). 현재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는 여가에 대한 개념은 미래에 인간의 끝없는 물질욕과 시간 기근 현상의 심화, 자유시간의 증대, 여가기회의 다양화로 인해 새로운 여가개념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다차원적인 여가개념이 될 것이다(노영구·박원임,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의 소비측면을 고려하여 여가의 개념을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고 이러한 여가활동에의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 참여만족을 포함한 여가참여 및 만족의 다차원적인 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3) 여가와 관련된 선행연구고찰

여가와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개인변인, 가족환경 변인, 객관적 경제변인, 주관적, 심리적 변인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각 개인들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주관적, 심리적 변인들이 여가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여가에 관한 기존연구들을 보면 여가에 대한 선호도, 만족도, 여가행동실태 등 여가에 관한 사실적 기술에만 그치고 있으며 여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개인의 심리적, 동기적 요소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영숙, 2004). (김영숙·이정연, 1998; 김영숙, 2004)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별로, 윤소영·차경욱(2004)은 세대별로, 홍성희·문숙재(1991)는 경제적 요인의 수준에 따라 여가참여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애 외(1985)는 시간관리능력에 따라서, (이승미, 1996; 한경미, 1991)는 교육수준이 여가시간의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이정연 외, 1997 재인용). Dardis Et Al.(1994)는 가계소득, 성인 수, 나이, 가장의 인종이나 교육이 여가비용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Talbot, 1989; 김영숙, 1989; 김영숙, 2002)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여가비지출에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작용하였다. (김외숙, 1993; 표영희, 1996; 강석희, 1999)의 연구에서 여가활동의 장애요

소로서 여가비지출이 영향요소로서 작용하였고, (홍성희·문숙재 1991)는 여가활동의 여가선후도와 실제 참여도 사이의 차이의 영향요소로서 여가비용이 작용하였다(김영숙, 2004 재인용).

여가만족도 연구에서는 단독으로 다루기보다는 생활만족도의 한 영역으로써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을 생활의 질과 지역사회 생활의 질 및 정신 건강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김영숙, 2004). 김영숙(2002)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도와 선호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고, (이정연 외, 1997; 이현아 외, 1999; 홍성희, 1996)의 연구에서는 여가비용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영숙, 2002 재인용), (안혜영, 1995; 양성인, 2002; 이정연 외, 1997; 장방신, 1985)의 연구에서는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회과학에서 중요한 연구문제로 다루어져왔던 여가연구들은 주 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더욱 관심이 높아졌고 시대를 거듭할수록 여가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국내 여가연구들은 대부분 여가 활동유형을 분류하여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실증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여가생활의 차이를 살펴본 김영숙(2004)의 연구, 여가활동 참여와 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백광 외(1999)의 연구, 여가동기와 여가활동, 다른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를 검토한 채선애·한성열(2002)의 연구 등의 몇몇 연구들을 제외하고는 심리적, 주관적 변인간의 관계를 고려한 여가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소비의 중요 수단이 되는 화폐와 관련하여 각 개인이 지니는 화폐태도가 여가참여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순히 '소득'이라는 객관적 변인이 아닌 화폐에 대한 개개인의 태도 차이가 여가의 참여와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본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성인 소비자들의 화폐태도 요인 및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화폐태도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도와 만족도  
는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광역시내의 8개구(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진구, 북구)에 거주하는 30대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2005년 1월 21일부터 1월 31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미흡한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5년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되었고 총 53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93부를 회수하였고, 수집된 자료 중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를 제외한 총 44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를 묻는 30문항, 여가참여도에 관한 문항, 여가만족도에 관한 5문항, 응답자 자신과 가족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묻는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군집분석,  $\chi^2$ -검증,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 사후검증으로 던컨(Duncan)검증, 중다회귀분석을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는 <표 1>과 같이 남성 29.8%, 여성 70.2%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은 30대가 54.3%로 가장 많았다. 결혼상태에서는 기혼이 83.3%로 높게 나타났고, 기혼자에 한하여 가족생활주기를 살펴본 결과 막내자녀 초중고 취학 중이 28.1%, 막내자녀 취학 전이 26.1%로 많았다. 가족구성에서는 부부/부모+자녀가 73.5%로 2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가족수에서는 4인 가족이 42.5%로 가장 많았다. 월평균 가계소득에서는 300만원 미만이 31.0%로 가장 높았고, 학력은 대졸이 52.3%, 고졸이하가 43.0%로 나타났다. 직업은 판매직/서비스직/자영업이 26.5%, 사무직 25.4%, 주부/기타, 무직이 18.7%, 교원 14.7%, 전문직/관리직이 8.9%, 단순노무직이 5.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49)

변인	집단	N	%	변인	집단	N	%
성별	남	134	29.8	가족수	5인 이상	102	22.7
	여	315	70.2		4인	191	42.5
연령	30대	244	54.3		3인	104	23.2
	40대	120	26.7		2인	52	11.6
	50대 이상	85	18.9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82	18.3
결혼 상태	기혼	374	83.3		300만원 미만	139	31.0
	미혼	75	16.7		400만원 미만	117	26.1
가족 생활 주기 (자녀) N=374	자녀 없음	24	5.3		400만원 이상	111	24.7
	막내자녀 취학 전	117	26.1	학력	고졸 이하	193	43.0
	막내자녀 초중고취학 중	126	28.1		대학	235	52.3
	막내자녀 대학재학/취업	65	14.5		대학원 이상	21	4.7
	한 자녀 이상 결혼	42	9.4	직업	전문직/관리직	40	8.9
					교원	66	14.7
가족 구성	4대 이상 함께 거주	14	3.1		사무직	114	25.4
	3대가 함께 거주	53	11.8		판매직/서비스직/자영업	119	26.5
	부부/부모+자녀	330	73.5		단순노무직	24	5.3
	부부	52	11.6		주부/기타, 무직	84	18.7

\* 빈도의 차이는 결측값 (missing value)에 의한 것임.

## 2. 화폐태도 요인 및 유형

### 1) 화폐태도 요인

본 연구에서는 화폐태도 요인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상대적 요인적재량에 의해 요인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1문항을 제외한 후,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여 <표 2>와 같이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최종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요인적재량이 .50이상인

변수들로 구성된 각 요인들은 총 분산의 66.7%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태도 요인분석의 세부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항내용에 맞추어 요인1은 성공의 상징, 요인2는 감정충족의 도구, 요인3은 미래안전의 도구, 요인4는 인색과 불신, 요인5는 불안의 원천, 요인6은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라 명명하였다.

<표 2> 화폐태도 요인분석

구분	문항내용	요인 적재치	Eigen Value	누적분산	Cronbach's $\alpha$	M (SD)
요인1 성공의 상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공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야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재산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li> <li>· 나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다.</li> <li>· 나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li> <li>· 나는 돈이 성공의 궁극적 상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li> <li>· 나는 때때로 그들의 능력이나 성취와는 관계없이 나보다 돈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느낀다.</li> <li>· 가끔씩 나의 용돈 또는 경제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자랑하곤 한다.</li> <li>· 나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한다.</li> <li>· 나는 돈이면 무슨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편이다.</li> </ul>	0.820 0.779 0.773 0.740 0.667 0.639 0.539 0.510	6.483	22.4%	0.870	2.36 (0.72)
요인2 감정 충족의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분전환을 위해 돈을 쓴다.</li> <li>· 나는 기분이 나쁠 때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li> <li>· 별로 원하지 않는 물건이라도 세일기간 중이거나 가격이 인하되면 사는 경향이 있다.</li> <li>· 돈 지출계획이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li> <li>·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신용카드나 월부로 사는 편이다.</li> </ul>	0.878 0.797 0.789 0.767 0.745	3.919	35.9%	0.870	2.30 (0.82)
요인3 미래 안전의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하는 편이다.</li> <li>· 나는 미래를 위해 재정계획을 하는 편이다.</li> <li>·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고 있다.</li> <li>· 계획한 예산에 맞추어 돈을 쓰는 편이다.</li> </ul>	0.895 0.867 0.850 0.794	3.336	47.4%	0.885	3.36 (0.78)
요인4 인색과 불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건을 산후에는 꼭 '다른데서 더 싸게 살 수 있었을 텐데'하는 느낌이 든다.</li> <li>· 비싼 물건을 살 때마다 꼭 속아서 사는 것 같다.</li> <li>·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일단은 '너무 비싸서 못사겠다'라고 말하는 편이다.</li> <li>· 어떤 목적에서이든지 원가를 살 때는 가격을 제일 먼저 고려한다.</li> </ul>	0.862 0.858 0.840 0.805	2.273	55.2%	0.874	2.90 (0.79)
요인5 불안의 원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으면 걱정된다.</li> <li>· 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는 편이다.</li> <li>·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진다.</li> <li>· 돈의 양이 크든 적든 간에 돈을 쓰는 결정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li> </ul>	0.832 0.812 0.730 0.704	2.140	62.6%	0.798	3.01 (0.70)
요인6 인정받기 위한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는 유명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편이다.</li> <li>· 나는 가능한 한 가장 비싼 물건을 사는 편이다.</li> <li>· 나는 최고급품을 갖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편이다.</li> <li>·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급스런 물건을 갖는 경향이 있다.</li> </ul>	0.804 0.793 0.727 0.554	1.191	66.7%	0.847	2.11 (0.80)

## 2) 화폐태도 유형

화폐태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점수의 동질성을 기본으로 군집을 3개, 4개, 5개, 6개로 나눈 후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원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통해 각 요인에서 특정한 하나의 군집의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나 <표 3>과 같이 군집을 5개로 나누었다.

군집1은 미래를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화폐에 대한 계획적인 소비행동을 취하는 집단으로 화폐를 미래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으로 명명하였고, 군집2는 화폐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많이 느끼는 집단으로 화폐를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3은 화폐를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성공의 상징으로 여기고 자신의 성공을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과시하는데 화폐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6개의 요인들 중 성공의 상징인 요인1과 인정받기 위한 수단인 요인6에서 각각 다른 요인들에 비해 현저히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화폐를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4는 화폐에 대한 통제적인 행동을 취하는 집단으로 화폐를 인색과 불신하는 태도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5는 화폐를 기분전환, 감정충족을 위해 비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이는 집단으로 화폐를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 3. 화폐태도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

화폐태도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chi^2$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가족 수, 월 평균 가계소득,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화폐태도 유형별 가족 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5인 이상의 가족은 군집3(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34.6%, 군집4(인색과 불신하는 집단)에서 32.3%, 4인 가족에서는 군집2(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집단)이 48.1%, 군집1(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이 42.3%, 3인 가족에서는 군집5(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26.7%, 군집1(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25.5%, 2인 가족에서는 군집5(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20.0%, 군집3(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19.2%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화폐태도 유형별 월 평균 가계소득을 살펴보면, 200만 원 미만은 군집4(인색과 불신하는 집단)에서 25.0%, 300만 원 미만은 군집1(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37.6%, 400만 원 미만은, 군집5(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31.1%, 400만 원 이상은 군집3(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61.5%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 중간정도에 군집1(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과 군집2(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집단)의 사람들이 속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폐태도 유형별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하는 군집2(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집단)에서 50.4%, 대졸은 군집5(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66.7%, 대학원 이상은 군집3(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 15.4%로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군집1(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과 군집4(인색과 불신의 태도 집단)에 속

<표 3> 군집별 평균 요인점수와 표준편차

군집 요인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F-value
	미래안전 N=149(33.2%)	불안 N=133(29.6%)	성공·인정 N=26(5.8%)	인색과 불신 N=96(21.4%)	감정충족 N=45(10.0%)	
성공의 상징 D	-0.04(0.83) B	0.07(1.12) B	1.53(0.85) A	-0.22(0.81) BC	-0.47(0.73) C	22.842***
감정충족의 도구 D	-0.20(0.84) BC	-0.09(0.85) B	-0.50(0.71) C	-0.30(0.69) BC	1.88(0.44) A	75.097***
미래안전의 도구 D	0.75(0.65) A	-0.12(0.97) B	-1.15(0.76) D	-0.41(0.77) BC	-0.59(0.90) C	57.518***
인색과 불신 D	-0.36(0.53) B	-0.20(0.93) B	-0.85(0.52) C	1.38(0.52) A	-0.67(0.56) C	136.485***
불안의 원천 D	-0.49(0.69) B	1.07(0.64) A	-0.90(0.54) C	-0.26(0.77) B	-0.48(0.88) B	112.942***
인정받기위한 수단 D	-0.32(0.74) C	0.22(1.08) B	1.49(1.07) A	-0.17(0.78) C	-0.07(1.01) BC	24.872***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안은 표준편차임.

〈표 4〉 화폐태도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변인		화폐태도 유형					전체	통계치
		군집1	군집2	군집3	군집4	군집5		
성별	남 여	52(34.9) 97(65.1)	35(26.3) 98(73.7)	9(34.6) 17(65.4)	30(31.3) 66(68.8)	8(17.8) 37(82.2)	134(29.8) 315(70.2)	$\chi^2=6.112$ $df=4$
연령	30대 40대 50대 이상	80(53.7) 43(28.9) 26(17.4)	73(54.9) 40(30.1) 20(15.0)	11(42.3) 8(30.8) 7(26.9)	55(57.3) 21(21.9) 20(20.8)	25(55.6) 8(17.8) 12(26.7)	244(54.3) 120(26.7) 85(18.9)	$\chi^2=7.763$ $df=8$
결혼 상태	기혼 미혼	128(85.9) 21(14.1)	111(83.5) 22(16.5)	22(84.6) 4(15.4)	77(80.2) 19(19.8)	36(80.0) 9(20.0)	374(83.3) 75(16.7)	$\chi^2=1.774$ $df=4$
가족 생활 주기 (자녀)	자녀 없음 막내자녀 취학 전 막내자녀 초중고취학 중 막내자녀 대학재학/취업 한 자녀이상 결혼	12( 8.1) 40(26.8) 46(30.9) 19(12.8) 11( 7.4)	6( 4.5) 35(26.3) 43(32.3) 20(15.0) 7( 5.3)	1( 3.8) 4(15.4) 7(26.9) 4(15.4) 6(23.1)	2( 2.1) 28(29.2) 22(22.9) 17(17.7) 8( 8.3)	3( 6.7) 10(22.2) 8(17.8) 5(11.1) 10(22.2)	24( 5.3) 117(26.1) 126(28.1) 65(14.5) 42( 9.4)	$\chi^2=29.246$ $df=20$
가족 구성	4대이상 함께거주 3대 함께 거주 부부/부모+자녀 부부	2( 1.3) 15(10.1) 111(74.5) 21(14.1)	3( 2.3) 18(13.5) 104(78.2) 8( 6.0)	1( 3.8) 6(23.1) 14(53.8) 5(19.2)	7( 7.3) 9( 9.4) 70(72.9) 10(10.4)	1( 2.2) 5(11.1) 31(68.9) 8(17.8)	14( 3.1) 53(11.8) 330(73.5) 52(11.6)	$\chi^2=20.571$ $df=12$
가족수	5인 이상 4인 3인 2인	28(18.8) 63(42.3) 38(25.5) 20(13.4)	28(21.1) 64(48.1) 32(24.1) 9( 6.8)	9(34.6) 6(23.1) 6(23.1) 5(19.2)	31(32.3) 40(41.7) 16(16.7) 9( 9.4)	6(13.3) 18(40.0) 12(26.7) 9(20.0)	102(22.7) 191(42.5) 104(23.2) 52(11.6)	$\chi^2=21.743^*$ $df=12$
월평균 가계 소득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25(16.8) 56(37.6) 43(28.9) 25(16.8)	23(17.3) 39(29.3) 38(28.6) 33(24.8)	1( 3.8) 8(30.8) 1( 3.8) 16(61.5)	24(25.0) 28(29.2) 21(21.9) 23(24.0)	9(20.0) 8(17.8) 14(31.1) 14(31.1)	82(18.3) 139(31.0) 117(26.1) 111(24.7)	$\chi^2=36.124^{***}$ $df=12$
학력	고졸 이하 대학 대학원 이상	59(39.6) 86(57.7) 4( 2.7)	67(50.4) 59(44.4) 7( 5.3)	10(38.5) 12(46.2) 4(15.4)	44(45.8) 48(50.0) 4( 4.2)	13(28.9) 30(66.7) 2( 4.4)	193(43.0) 235(52.3) 21( 4.7)	$\chi^2=16.764^*$ $df=8$
직업	전문직/관리직 교원 단순노무직 판매직/서비스직 /자영업 생산직 주부/기타, 무직	12( 8.1) 26(17.4) 38(25.5) 38(25.5) 10( 6.7) 25(16.8)	10( 7.6) 19(14.4) 40(30.3) 37(28.0) 5( 3.8) 21(15.9)	6(23.1) 1( 3.8) 6(23.1) 8(30.8) 0( 0.0) 5(19.2)	6( 6.3) 13(13.5) 24(25.0) 27(28.1) 8( 8.3) 18(18.8)	6(13.6) 7(15.9) 6(13.6) 9(20.5) 1( 2.3) 15(34.1)	40( 8.9) 66(14.8) 114(25.5) 119(26.6) 24( 5.4) 84(18.8)	$\chi^2=27.042$ $df=20$
빈도수(%)		149(33.2)	133(29.6)	26( 5.8)	96(21.4)	45(10.0)	449(100)	-

\*p&lt;.05 \*\*p&lt;.01 \*\*\*p&lt;.001

하는 사람들의 학력은 대졸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가족 수가 적을수록, 월 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감정충족이나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태도를 지니고, 가족 수가 많을수록, 월 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화폐에 대한 인색과 불신하는 태도를 지니며, 학력이 낮을수록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태도를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화폐태도 유형별로 소득,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박정숙, 2001; 백은영, 1997; 홍은실 외, 2001)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 4.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 및 만족도의 차이

##### 1)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도의 차이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이 관람활동에서는 관람활동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 참여만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개발에서는 자기개발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참여만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포츠 활동에서는 스포츠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 참여만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행에서는 여행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 참여만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관람활동, 자기개발, 스포츠 활동, 여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각 변인에서 모두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인색과 불신하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타활

동에서는 기타활동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참여만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타활동 참여정도와 참여시간에서는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색과 불신하는 집단은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보다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도의 차이

변인	집단	관람활동 참여정도			관람활동 참여시간			관람활동 참여비용			관람활동 참여만족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화폐태도 유형	군집1 미래안전	1.58	1.13	B	0.33	0.37	BC	34852.35	55266.02	C	3.23	1.40	A
	군집2 불안	1.38	1.04	B	0.31	0.37	BC	27142.86	35404.89	C	3.08	1.57	AB
	군집3 성공·인정	2.23	1.42	A	0.48	0.41	A	114884.62	145886.90	A	3.63	1.19	A
	군집4 인색과불신	1.21	1.10	B	0.24	0.42	C	18463.54	22628.14	C	2.54	1.84	B
	군집5 감정충족	2.07	1.37	A	0.39	0.36	AB	62922.22	88283.70	B	3.11	1.46	AB
	F비	7.417***			2.607*			16.885***			4.028**		
변인	집단	자기개발 참여정도			자기개발 참여시간			자기개발 참여비용			자기개발 참여만족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화폐태도 유형	군집1 미래안전	2.38	1.71	B	4.90	4.58	AB	46402.69	50739.79	AB	3.30	1.37	
	군집2 불안	2.36	1.32	B	4.47	4.33	B	58902.26	56880.37	B	3.21	1.23	
	군집3 성공·인정	3.08	1.55	A	6.21	4.54	A	146846.15	225349.45	A	3.45	0.86	
	군집4 인색과불신	1.72	1.30	C	3.44	4.10	B	27896.88	37498.60	C	2.93	1.51	
	군집5 감정충족	2.56	2.12	AB	4.54	4.29	B	74822.22	100288.97	B	3.31	1.34	
	F비	5.409***			2.722*			13.408***			1.457		
변인	집단	스포츠 참여정도			스포츠 참여시간			스포츠 참여비용			스포츠 참여만족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화폐태도 유형	군집1 미래안전	1.97	1.46	BC	2.75	3.15	BC	50869.13	98142.95	BC	3.28	1.57	A
	군집2 불안	1.83	1.49	BC	3.06	3.55	AB	43586.47	74445.74	BC	3.23	1.58	A
	군집3 성공·인정	2.73	1.49	A	4.14	3.30	A	108730.77	95145.18	A	3.76	0.89	A
	군집4 인색과불신	1.44	1.39	C	1.77	2.41	C	22406.25	35319.47	C	2.65	1.79	B
	군집5 감정충족	2.29	1.84	AB	3.23	3.25	AB	74755.56	119204.40	B	3.34	1.45	A
	F비	5.183***			4.131**			6.913***			3.855**		
변인	집단	여행 참여정도			여행 참여시간			여행 참여비용			여행 참여만족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화폐태도 유형	군집1 미래안전	1.42	0.86	B	0.38	0.53	BC	170181.21	241823.93	C	3.41	1.44	ABC
	군집2 불안	1.28	0.92	B	0.38	0.50	BC	268157.90	684758.16	C	3.09	1.70	BC
	군집3 성공·인정	2.04	0.77	A	0.61	0.93	A	1023846.15	955472.98	A	3.91	0.97	A
	군집4 인색과불신	1.09	0.77	B	0.33	0.56	C	120781.25	201047.69	C	2.87	1.73	C
	군집5 감정충족	1.87	0.87	A	0.58	0.69	AB	810222.22	1012910.95	B	3.67	1.14	AB
	F비	10.698***			2.443*			24.222***			4.325**		
변인	집단	기타활동 참여정도			기타활동 참여시간			기타활동 참여비용			기타활동 참여만족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화폐태도 유형	군집1 미래안전	7.38	3.04	B	12.56	7.52	B	278232.22	208010.65	C	3.69	0.44	
	군집2 불안	6.82	3.39	BC	11.71	7.79	B	280951.13	292614.37	C	3.72	0.62	
	군집3 성공·인정	7.42	2.61	B	12.36	7.96	B	669000.00	563316.70	A	3.79	0.44	
	군집4 인색과불신	6.04	3.04	C	10.22	7.32	B	152416.67	112792.85	D	3.61	0.48	
	군집5 감정충족	8.64	2.98	A	17.01	9.08	A	551246.67	372663.72	B	3.66	0.43	
	F비	6.118***			6.125***			28.925***			1.029		

\*p&lt;.05 \*\*p&lt;.01 \*\*\*p&lt;.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와 같이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가참여정도, 여가참여시간, 여가참여비용, 여가참여만족에 모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여가참여정도, 여가참여시간, 여가참여비용, 여가참여만족이 가장 높은 반면, 인색과 불신하는 집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화폐태도 유형이 여가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은 타인을 매우 의식하므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소비를 많이 하고, 화폐를 다름에 있어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므로 다른 집단에 비해 여가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인색·불신하는 태도 집단은 화폐를 다름에 있어 통제적이고 부자유스러우며 화폐 자체에 대한 인색함과 불신의 태도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집단에 비해 여가참여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2)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차이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폐태도 유형별 현재 여가만족도, 하루 여가활애시간 만족도, 알찬 여가시간정도, 현재 여가적합정도, 전체 여가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화폐태도 유형별 한 달 여가비용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한 달 여가비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집단이

한 달 여가비용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은 여가생활을 위한 월 평균 여가비용 지출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집단은 여가생활을 위한 월 평균 여가비용 지출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 5.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영향변인

화폐태도 유형별로 여가만족도의 영향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Stepwise 방식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에 인구통계적 변인, 전체 및 각 활동별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 참여만족이 독립변인으로 포함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먼저 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을 대상으로 여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결과 전체 여가참여정도가 높을수록, 기타활동참여시 높게 만족할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관람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자기개발활동에 참여시 높게 만족할수록,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판매직/서비스직/자영업에 종사자들과 단순노무직의 종사자일수록, 여성일수록, 막내자녀가 취학 전인 가정일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인들의 설명력은 43%였다.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집단은 전체 여가참여만족이 높을수록, 전체 여가참여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여가만족

<표 6>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차이

변인	집단	현재여가만족도			하루여가활애시간만족도			한달여가비용만족도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화폐태도 유형	군집1 미래안전	3.11	1.01		2.80	0.97		2.96	0.97	ABC
	군집2 불안	3.07	0.96		2.96	0.99		2.78	0.96	C
	군집3 성공·인정	3.54	0.91		3.08	0.98		3.31	0.74	A
	군집4 인색과 불신	3.01	0.85		2.79	0.92		2.83	0.83	BC
	군집5 강정충족	3.11	0.96		2.87	1.06		3.16	0.85	AB
	F비	1.635			0.901			2.959*		
변인	집단	알찬여가시간정도			현재여가적합정도			전체여가만족도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평균	편차	D
화폐태도 유형	군집1 미래안전	2.88	1.03		3.06	1.09		2.96	0.88	
	군집2 불안	2.76	1.01		2.93	1.05		2.90	0.85	
	군집3 성공·인정	3.12	0.99		3.27	0.92		3.26	0.71	
	군집4 인색과 불신	2.64	0.88		2.85	0.85		2.83	0.71	
	군집5 강정충족	2.91	0.97		3.07	0.94		3.02	0.81	
	F비	1.761			1.331			1.688		

\*p<.05 \*\*p<.01 \*\*\*p<.001,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7〉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영향변인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T	R <sup>2</sup>	F값	
여가 만족도	군집1 미래안전	여가참여정도	.164	.214	2.972**		
		기타활동참여만족	.617	.307	4.450***		
		직업(판/서/자)	-.469	-.233	-3.450**		
		성별(여성)	-.406	-.221	-3.182**		
		소득	.001	.158	2.234*	.431	10.443***
		자녀(취학 전)	-.340	-.172	-2.546*		
		관람활동참여시간	.336	.141	2.078*		
		자기개발참여만족	.114	.178	2.536*		
	군집2 불안	스포츠활동참여비용	1.238E-06	.138	2.068*		
		직업(단순노무직)	-.497	-.142	-2.050*		
	군집3 성공·인정	여가참여만족	.362	.359	4.640***	.269	15.810***
		여가참여비용	1.286E-06	.250	3.221**		
		가족 수	-.167	-.179	-2.371*		
	군집4 인색과 불신	자기개발참여시간	-.066	-.423	-2.285*	.179	5.220*
	군집5 감정충족	여가참여비용	4.107E-06	.295	3.194**	.294	9.466***
		성별(여성)	-.516	-.337	-3.771***		
		기타활동참여만족	.386	.261	2.795**		
		직업(교원)	.390	.188	2.082*		
		스포츠활동참여시간	.093	.375	2.656*	.141	7.056*

\*p&lt;.05 \*\*p&lt;.01 \*\*\*p&lt;.001

※ 성별은 남성, 결혼상태는 기혼, 가족생활주기(자녀)는 자녀없음, 가족구성은 4대 이상 함께거주, 직업은 전문직/관리직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가변인(dummy variable)처리 하였음.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가족 수가 많을수록 여가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인들의 설명력은 27%였다.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은 자기개발 참여시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18%였다. 인색하고 불신하는 태도 집단은 전체 여가참여비용 지출이 많을수록, 기타활동 참여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직 종사자일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일수록 여가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인들의 설명력은 29%였다.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14%였다.

##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영향변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소비자들의 화폐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성공의 상징, 감정충족의 도구, 미래안전의 도구, 인색과 불신, 불안의 원천, 인정받기 위한 수단의 총 6개 요인으로 나뉘었고, 화폐태도를 유형화하기 위한 군집분석 결과, 5개의 군집이 추출되었다. 5개의 군집은 각 요인의 특성을 살려 화폐를 미래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 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집단,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 인색과 불신하는 집단, 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화폐태도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가족 수, 월 평균 가계소득,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의 하위영역인 관람활동, 스포츠 활동, 여행은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 참여만족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자기개발, 기타활동에서는 참여정도, 참여시간, 참여비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차이는 한 달 여가비용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섯째,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만족도의 영향변인들을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 소비자들의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 및 만족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들의 화폐태도 요인을 분류하고, 유형화한 후,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도와 여가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살펴본 결과, 군집1(미래 안전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는 성별(여성), 소득, 직업(판매직/서비스직/자영업), 직업(단순노무직) 가족생활주기(막내자녀 취학 전), 여가참여정도, 관람활동 참여시간, 스포츠 활동 참여비용, 자기개발 참여만족, 기타활동 참여만족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군집2(불안의 원천으로 여기는 집단)에서는 가족 수, 여가참여비용, 여가참여만족이, 군집3(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는 자기개발 참여시간이, 군집4(인색과 불신하는 태도 집단)에서는 성별(여성), 직업(교원), 여가참여비용, 기타활동 참여만족이, 군집5(감정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시간이 영향변인들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을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는 그 동안 소비자의 여가와 관련한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관적, 심리적 변인인 화폐태도를 고려하여 성인 소비자들의 화폐태도 유형별 여가참여 및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많은 여가관련 연구들은 주관적, 심리적 변인보다는 객관적 변인을 고려한 사실적 기술에 더 많은 연구를 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의 몇몇 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여가활동이 모두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고려하여 소비생활 전반에 걸쳐 인간과 가장 밀접하고 민감한 관계에 놓여있는 화폐에 대하여 각 개인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여가참여 및 만족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화폐태도 유형별로 여가참여도와 여가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고, 이러한 결과는 여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화폐태도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가족 수, 월 평균 가계소득,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으로써 성인 소비자들의 화폐태도 유형별 인구통계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자료는 합리적인 여가생활을 위한 바람직한 화폐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화폐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성인 소비자들이 지난 잘못된 화폐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화폐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생각을 갖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시절에 형성된 태도는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들이 올바른 화폐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각 가정, 학교, 사회 모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화폐태도 유형에 따라 여가참여도와 여가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결과를 통해 성인 소비자들의 여가참여도와 여가만족도의 차이가 단지 경제적 여유가 없

어서나 소득이 적은 이유에서 뿐만이 아닌 화폐에 대해 갖는 성인 소비자들의 태도가 여가생활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아낸 것에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화폐태도 유형에서 성공·인정의 도구로 여기는 집단이 가장 여가참여도와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인색과 불신하는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결과를 통해 각 개인들이 화폐에 대해 어떤 태도 유형을 가지느냐에 따라 여가참여에 적극적인지 소극적인지 또는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여가생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여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나 여가관련 마케팅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성인 소비자 자신에게 있어 자기가 어떠한 화폐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여가참여도나 여가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여가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가진단을 해봄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행동수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주제어 : 화폐태도, 여가참여도, 여가만족도

#### 참 고 문 헌

- 장희선 (2002). 돈의 경제적 의미와 심리적 의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 (1997). 교사의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2002). 여가활동 유형이 여가만족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 (1989). 한국 가정의 가계소비유형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2). 성인소비자의 여가비지출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5(2), 129-158.
- \_\_\_\_\_. (2004). MBTI성격유형에 따른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7(2), 83-106.
- \_\_\_\_\_. (2004). 성별에 따른 여가생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7(4), 115-126.
- \_\_\_\_\_. 심미영 (2004). 도시 가계의 여가오락서비스 소비지출구조 및 영향요인분석, 한국가정과학회지, 7(1), 131-143.
- \_\_\_\_\_. 이정연 (1998). 여가활동 참여도가 여가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성대학교 논문집, 19(2), 43-63.
- 김영신 (2001). 대학생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에 따른

- 강박적 구매행동, 소비문화연구, 4(3), 41-66.
- 김정훈 (2002).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5.
- 김정훈, 동환숙 (2002). IMF 경제 위기 전후 대학생의 돈에 대한 태도와 행동차이, 한국생활과학회지, 11(3), 237-247.
- 김정훈, 이은희 (2002). 돈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유형에 따른 전라북도 대학생들의 소비가치, 물질주의 태도, 구매충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121-128.
- 김정훈, 정혜정 (1996). '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시험적 연구: MBBS 적용 및 비교문화적 관점, 원대논문집 32(2), 521-535.
- 노용구, 박원임 (2000). 여가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9, 91-103.
- 박정숙 (2001). 대학생 소비자의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의 복구매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광, 이제홍, 임종호(1999). 성인의 여가활동 참여와 태도와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2, 515-526.
- 백은영 (1997). 돈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계의 저축 및 저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은영, 정순희 (1998). 도시가계의 화폐태도유형과 지출행동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3), 47-60.
- 송원익 (2004). 도시근로자의 여가참여형태 및 제약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혜영 (1995).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성인 (2002). 주 5일 근무제가 도시근로자들의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순환 (2000). 한국여가문화의 이해, 일신사.
- 윤소영, 차경욱 (2004). 여가인식, 활동유형 및 여가제약의 세대간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97-107.
- 윤영화 (2003). 여성층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인천지역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명지대학교 교통관광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말남 (2002). 화폐금융론, 형설사.
- 이순희 (2000). 청소년의 돈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연, 심미영, 김영숙 (1997). 여가생활만족도에 관한 인과관계분석-여가생활참여도, 여가시간, 여가비용-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3), 287-305.
- 이중구 (2000). 여가문화와 놀이, 대경도서출판.
- 장방신 (1985). 서울시 주부들의 여가생활 내용,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무배 (1998). 도시인의 여가활동실태와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http://www.nso.go.kr/>
- 홍성희, 문숙재 (1991). 주부의 여가활동과 여가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153-174.
- 홍은실, 황덕순 (2001) 여대생 소비자의 화폐에 대한 태도 유형별 가치특성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4(2), 21-37.
- 홍은실, 황덕순, 한경미 (2001) 여자대학생의 물질주의 가치성향과 화폐에 대한 태도 및 금전사용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43-158.
- Christopher, AN, Marek, P, Carroll, SM (2004) Materialism and Attitudes Toward Money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2(2), 109-117.
- Dardis, R, Soberon-Ferrer, H, Patro, D (1994) Analysis of Leisure Expenditur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6(4), 309-321.
- Kelly, JR (1972) Work and Leisure : A simplified Paradigm" *Journal of Leisure Research*. 4, 50-62.
- Roberts, JA, Jones, E (2001) Money Attitudes, Credit Card Use, and Compulsive Buying among Americ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5(21), 213-240.
- Tang, TLP (1992) The meaning of money revisited.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197-202.
- Tang, TLP (1995) The development of a short money ethic scale : attitudes toward money and pay satisfaction revisite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19(6), 809-816.
- Yamauchi, KT, Templer, DI (1982), The development of a money attitud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6(5), 522-528.

(2005. 08. 25 접수; 2005. 10. 15 채택)